



타이거 우즈가 4월 열린 2007 마스터스 연습라운드 도중 징검을 입에 문채 불을 워터헤저드에 처 '물수제비 뜨기'를 시도하고 있다. 마스터스 전통 중 하나인 물수제비 뜨기는 22년전 대회 마지막 날 리 트레비노가 처음 시도한 후 전통으로 굳어졌으며 불이 수면에서 20도 정도의 각도에 시속 100km 이상으로 진입해야 하며 최고기록은 2002년에 세워진 40번이다.

/AP=연합뉴스

최경주 “5위 안에 들겠다”



마스터스골프대회에 5년 연속 출전하는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목표는 5위 이내 드는 것”이라며 “더 좋은 성적도 기대하고 있다”고 우승 욕심을 내비쳤다.

최경주는 4일(한국시간) 아시아프로골프투어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에서는 좋은 추억이 많다”서 “이미 27홀이나 연습 라운드를 돌았는데 그린 상태가 더할 나위없이 좋다”고 말했다.

■ 마스터스 이모저모

‘골프황제’ 자신감 피력

○…다섯번째 그린제icket에 도전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간단 명료하게 피력했다.

스포츠 티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우즈와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인 필 미켈슨(미국)을 밀어낼 젊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질문에 대해 우즈는 “그게 누군데?(Who?)”라고 짧게 맞받아 질문한 기자를 며칠하게 만들었다.

아널드 파머 시타하기로

○…아널드 파머(78)가 6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명장열전’ 마스터스골프대회의 시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4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파머는 이날 대회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

“아이언 샷, 퍼팅감 좋아 쇼트게임 자신”

딱딱한 그린에서도 볼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높은 탄도의 컷샷을 새로운 무기로 마련했다는 최경주는 “아이언샷도 좋고 퍼팅 감각도 좋다”면서 “특히 쇼트 게임에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경주는 또 후배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과 함께 아시아 투어에서 함께 뛰던 지브 밀카 싱(인도)이 마스터스에 출전한 데 대해 “아시아 골프의 수준이 높아진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반겼다.

양용은과 내내 연습 라운드를 함께 들면서 코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줬다는 최경주는 “한국 선수가 한꺼번에 두명이나 마스터스에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최경주는 5일(한국시간) 밤 11시23분 강호 마이크 위어(캐나다), 헨리 스텔론(스웨덴)과 함께, 양용은은 6일 오전 1시 57분 세계랭킹 9위 레티프 구센(남아공), 존 룰린스(미국)와 경기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나를 이길자 있다고? Who ?”

(누구)

스타내셔널골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타 할) 시간이 왔다”면서 “오거스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 마스터스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대회”라면서 시타 결정 이유를 밝혔다.

마스터스 시타는 샘 스니드가 2002년 세상을 떠난 이후 중단됐으나 과거의 결심으로 5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PGA 통산 62승을 올린 파머는 메이저대회에서 7승을 거뒀고 이 가운데 4승을 마스터스 그린제icket으로 채웠다.

파머는 2004년 마스터스에 50년 연속이자 마지막으로 출전한 뒤 작년 10월 한 시니어대회에 출전했다가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미켈슨 올해도 드라이버 2개

○…작년 2개의 드라이버를 들고 출전, 코스에 맞

게 티샷을 요리해 우승을 차지했던 미켈슨은 올해도 역시 2개의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오기로 했다. ‘제2의 드라이버’는 최근 캘러웨이골프가 내놓은 사각 드라이버라고.

미켈슨은 “사프트가 긴 두 번째 드라이버로 연습을 많이 해왔다. 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켈슨은 대신 샌드웨지와 3번 페어웨이우드를 골프백에서 빼고, 아마추어들은 도저히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64도짜리 웨지를 집어넣었다.

그린 주변에서 볼을 높이 띄우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64도 웨지는 ‘쇼트 게임의 1인자’인 미켈슨 외에는 사용하는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켈슨은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의 전장이 길어지면서 지난 3~4년간 샌드웨지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담양다이너스티CC 6월5일 그랜드 오픈

오는 6월 5일 오픈 예정인 담양다이너스티CC 1번 홀 그린과 페어웨이, 워터헤저드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뒤편엔 영국왕실의 성을 짚고 놓은 듯한 웅장한 클럽하우스 외관이 담양다이너스티CC의 품격을 더해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 최초의 최상급 잔디인 ‘제니스’가 페어웨이에 심재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다양한 코스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최고 품격의 담양다이너스티CC(18홀)가 오는 6월 5일 그랜드 오픈한다.

또 함평다이너스티CC(18홀)도 9월 증설공사를 주관, 2008년 10월 27홀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장흥다이너스티CC(27홀)는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공, 이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주그룹은 경북 철곡(27홀·인허가중), 나주(27홀·토지 매입중), 장성(27홀·토지 매입중), 담양 대덕(27홀·토지 매입중), 안성(18홀·올해 말 착공예정), 담양 봉산(9홀·인허가중) 등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회원 가입시 이미 운영중인 동두천다이너스티를 비롯 전국 10개 연계 골프장에서 똑같은 회원 대우 자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다이너스티CC 6월5일 개장=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산 83번지 일원에 흔남 최고의 골프장으로 위용을 드러낸 담양다이너스티CC는 오는 6월 5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막바지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모든 페어웨이가 최상급 ‘제니스’ 잔디로 수놓아져 있는데 이 잔디는 미국에서 품종이 개량된 것으로 일반 잔디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생육기간이 40여일 이상 길어 초봄과 늦가을에도 푸른색을 유지

페어웨이 최상급 잔디 ‘제니스’…영국왕실 재현한 명품 클럽하우스

함평다이너스티 9홀 늘려 내년 10월 27홀 명문 골프장으로 재탄생

장흥다이너스티 내년 12월 오픈…전국 대주 10개 골프장 회원 대우

하는 게 큰 특징이다.

이같은 강점과 함께 수려한 조경과 난이도 높은 코스 설계로 전국 골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왕실의 성’을 재현한 전국 최대, 최고급 설비의 클럽하우스와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설계자 앤드리아 비세고와 마쓰모 비고니가 꾸민 내부시설도 최고급을 지향하는 골퍼들의 기호를 충족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을 이용할 경우 15분에 도착하

는 용이한 접근성이 담양다이너스티의 큰 매력을 유품하고 있다. 현재 VIP정회원권(5억5천만원)과 연계 정회원권(2억8천만원)이 높은 관심속에 분양되고 있다.

▲함평다이너스티CC 9홀 증설= 지난 2005년 4월 흔남 최초의 양 잔디골프장으로 개장한 함평다이너스티CC는 석산 제거와 9홀 증설을 통해 회원제 27홀의 명문골프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임폐리얼 1번홀 뒷편의 석산을 제거하는 작업과 9홀 추가 증설공사를 오는 2008년 9월께 마치고 10월부

터 27홀 리운딩이 가능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함평다이너스티CC는 전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2위로 뽑힌 ‘클럽하우스’와 적절한 난이도를 갖춘 코스, 4계절 푸른 환상적인 양잔디로 내장객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골프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여자프로골프 정규대회인 국민은행 스타투어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고, SBS골프채널 ‘백서스배 부부골프 챌린지’, KPGA 프로골프 시드선발전 등 크고 작은 대회가 열려 명문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남 최초로 시설된 3층 21실 규모의 호텔급 ‘골프밸’도 타 시·도 내장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장흥다이너스티CC 내년 12월 오픈=장흥군 장령면 기동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장흥다이너스티CC는 지난해 10월 착공돼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08년 12월 개장 할 예정이다. 남국의 이국적인 풍경으로 조성될 장흥다이너스티는 페어웨이가 넓어 시야가 확장된 분위기에서 호쾌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화순의 국도 29호선과 장흥 839호선이 완공되면 광주에 서 40분내에 진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